

이원재 1차관, “지역활력타운 중앙부처-지자체 협력 지원” 강조 - 16일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공동 노력 당부 -

□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16일(금)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역 활력타운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장* 간담회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이주민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.

* (참석) 최상기 인제군수, 송인현 괴산군수, 최재구 예산군수, 최경식 남원시장, 이병노 담양군수, 김하수 청도군수, 구인모 거창군수 등 7곳

○ 이날 간담회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장들과 중앙부처*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“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”를 위한 “지역활력타운” 정책의 추진 방안과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.

* 국토부, 행안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복지부, 해수부, 중기부

□ 이 차관은 “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역량을 모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“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을 통해 그간 공급자 중심의 중앙정부 지원을 지역 맞춤형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 “각 부처별 파편화된 지원이 아닌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결한 원스톱 지원을 실현 하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□ 아울러, 이 차관은 “지역활력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성과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6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